

지역 매 아리

2019김제농업기계박람회

농협이동점포운영(NH WINGS) 큰호응

NH농협은행 전북본부(본부장 김장근)는 김제농업기계박람회 기간중 벽골제 광장에 농협이동점포를 운영하여 큰호응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농협이동점포는 5일부터 8일까지 운영되며 현금자동입출금기 2대와 LED전광판 등 최첨단장비를 갖춘 차량으로 위성통신시스템을 통해 농협전산망과 연결 365코너의 금융서비스가 제공 된다.

김장근 본부장은 박람회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이동점포 관계자들을 격려하며 "이번 박람회가 첨단농업 기자재의 보급과 농업기술정보의 활발한 교류를 통해 농가소득향상과 농업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될 것을 확신한다"면서 농협은 언제나 고객이 필요로 하는 금융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역민과 현장을 찾아 발로 뛰는 현장은행, 국민의 농협이 되도록 노력 하겠다"고 밝혔다.

/김제=곽노태 기자

만경읍, 연말 공직기강 확립

전 직원 민원인 응대 친절 교육 실시

김제시 만경읍(읍장 최병인)에서는 7일 전 직원을 대상으로 연말 공직기강 확립을 비롯한 민원인 응대 친절 교육을 실시하였다.

최병인 만경읍장은 직원회의를 통해 내년 4월 실시되는 국회의원 선거에 공직자의 철저한 선거중립과 한 해를 마무리하는 즈음에 당면한 시정업무의 능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를 챙겨줄 것과 바쁜 때 일수록 담당별로 직원 간 소통과 화합으로 민원인 친절이 업무보다 선행되어야 함을 당부하였다.

공무원 채용 공백으로 공무원 세대 격차가 심하므로 직원 간의 소통과 화합 또한 민원인 친절로 연결됨을 강조하였다. 시민감동 행정서비스는 미소와 함께 하는 웃는 인사와 열린 마음으로 소통하고 가부를 분명히 하여 능동적이고 책임감 있는 행정업무가 실현될 때 가능함을 주지하였다. 만경읍에서는 내방하는 모든 민원인에게 따뜻한 차(커피·작두콩차 등)를 제공함으로써 서로의 마음이 먼저 열리고 편안한 공간의 행정복지센터가 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만경읍 직원 친절교육은 매월 1회 정례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당면한 업무 직원 회의의 시마다 수시로 친절이 체질화될 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김제=곽노태 기자

구독 · 광고문의 288-9700



완주군 청년키움식당이 12월 참가팀은 오는 22일까지 모집하며, 내년도 참가팀을 모집한다.

청년키움식당 내년도 참가팀 모집

완주군, 활동기간 최대 3개월 최적 조건에서 실전경험 기회

청년들이 최적의 조건에서 창업의 꿈을 키울 수 있도록 돕는 완주 청년키움식당이 내년도 참가팀을 모집한다.

7월 완주군에 따르면 청년키움식당은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유통공사에서 마련한 외식창업 인큐베이팅 프로젝트다.

창업 아이디어를 가진 청년들에게 주방시설 등 외식업 설비가 갖춰진 사업장 '청년키움식당'에서 입차료

부담 없이 창업기회, 매장운영 등의 실전경험을 할 수 있다.

완주 청년키움식당은 올해까지 참가팀 15팀을 운영해 총 58명이 청년키움식당 운영을 경험했고, 이들은 실제로 창업에 성공하거나 관련 직종 취업에 성공하기도 했다.

모집대상은 외식창업을 희망하는 대학생, 청년팀이며 청년과 팀으로 구성된 장년도 가능하다.

활동기간은 최대 3개월까지이며, 이 기간 동안 예비창업자들은 기획부터 운영까지 외식창업을 경험해 볼 수 있다.

운영사인 외식창업인큐베이팅 추진단은 참가팀에 메뉴 선정부터 매장

운영에 이르기까지 활동 및 메뉴개발과 쿠킹클래스 교육 등 전반적인 교육 컨설팅을 지원한다.

12월 참가팀은 오는 22일까지 모집하며 참가를 희망하는 청년 및 장년팀은 완주군 외식창업인큐베이팅추진단(063-290-2828)으로 문의하면 된다.

정재운 단장은 "외식창업 인큐베이팅 지원 사업은 일정 기간 동안 실질적인 사업장 운영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창업 역량을 높이기 위한 사업이다"며 "많은 예비 창업자들이 지원해 든든한 경험을 쌓길 바란다"고 말했다.

/원주=이종복 기자

"호국정신을 완주군 지역정신으로 계승발전"

웅치·이치전투기념사업회 창립 3주년 기념대회 개최

웅치·이치전투 기념사업회가 창립 3주년을 맞았다.

7일 (사)웅치·이치전투 기념사업회(상임대표 황병주)가 완주문화예술회관에서 창립 3주년 기념대회를 열었다.

이날 행사에는 기념사업회 회원 250여명을 비롯해 박성일 완주군수, 최등원 완주군의회 의장, 기관단체장, 군민 등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념 축하공연, 정기총회 순으로 진행됐다. 또한 송지용 전 리북도의회 부의장과 웅치노래를 작곡한 이민에 선생에 대한 감사패 전달과 웅치이치 전투 영상을 함께 관람하며 행사의 의미를 더했다.

이외에도 참석자 전원이 결의문 낭독과 웅치의 노래를 부르며 선조들의 숭고한 희생을 추모하고, 호국정신을 되새기는 의미있는 시간을 가졌다.

황병주 상임대표는 대회를 통해 "전적지 사적화 지정을 위한 노력을 민관협의체 중심으로 지속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박성일 완주군수는 축사를 통해 "웅치·이치전투 전적지를 재조명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밝히고 "선조들이 보여준 웅치·이치전투의 호국정신을 완주군 지역정신으로 계승발전하자"고 강조했다.

/원주=이종복 기자

황산면, 주민자치 특색사업 마늘고추장 담기 전개

김제시 황산면은 주민자치특색사업의 일환으로 마늘고추장 담기사업을 7일 주민자치위원회 이보연위원 자택에서 위원 15명과 면직원이 참여한 가운데 나눔행사를 가졌다.

황산면 지역에서 생산한 질 좋은 고춧가루 80근과 마늘, 사과, 배 등을 이용해 고추장을 직접 담가 2kg용기 150통에 정성을 다해 포장하여 담근 고추장은 각 마을 이장의 추천을 받은 취약계층과 경로당 등 120세대에 주민자치위원이 직접 전달하여 위로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제=곽노태 기자

완주군, '마을 세무사' 출장 상담 진행

11일 삼례 · 봉동서 무료 상담서비스 실시

완주군이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마을 세무사 출장 상담을 진행한다.

7일 완주군은 오는 11일 삼례읍과 봉동을 행정복지센터에서 '마을세무사 상담 day'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마을세무사' 제도는 세금 고민(양도소득세, 증여세, 취득세 등)이 생겼을 때, 세무사가 무료(재능기부)로 세무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로, 완주군에 총 3명의 마을세무사가 지정돼 활동하고 있다.

당일 현장에서 세무 상담을 받지 못하더라도 마을세무사 명단과 연락

처를 군 홈페이지와 군청 재정관리과,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어, 언제든지 전화상담도 가능하다.

완주군 관계자는 "마을세무사 제도는 군민들이 부담 없이 세무 상담을 받을 수 있고,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좋은 제도로 전문성 있는 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완주군청 재정관리과 세정팀(063-290-2329)으로 문의하면 된다. /원주=이종복 기자



허전 김제시 부시장은 최근 자동차융합기술원을 방문했다.

"관련기관, 기업의 소통과 협업 필요"

허전 부시장, 백구 특장차 클러스터 조성 행보

2022년 준공 목표, 14개 기업 입주의향서 제출

허전 김제시 부시장은 최근 자동차융합기술원을 방문하여 백구 특장차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적극 행보를 밝혔다.

자동차융합기술원은 2003년 설립된 전북도 출연기관으로 자동차부품 산업의 기술지도 보급 및 훈련으로 산업구조 고도화와 국제경쟁력을 제고하는 목적으로 하며 주요사업으로는 전북 자동차 생산기반산업 및 연관산업 집적화 단지조성, 자동차·생산기반사업 신규사업 기획 및 육성계획 수립 등이다.

현재, 김제시는 특장산업을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육성, 김제시를 국내최초 특장차 집적전문단지조성하여 특장차 산업을 선도하고 있다.

이를 위해 백구 제2특장차 전문단지 조성은 2022년 준공 목표로 진행 중이며 이미 14개 기업이 입주의향서를 제출해 전체면적의 100% 분양

예정인 향후 320명의 고용창출이 전망되고 있다.

이성수 자동차융합기술원장은 "김제 특장차 전문단지는 21개 업체가 입주하여 클러스터를 구성하고 있으며, 특장차 자기인증센터가 2017년부터 운영되고 있어 전년도 및 납부권 특장차 기업들에게도 큰 호응을 받고 있는 곳이다. 본원은 백구 특장차 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기업과 기술의 융합, 협력을 통한 고도화를 위해 열정적으로 돕겠다"고 했다.

허전 부시장은 "백구를 특장 전문단지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김제시 뿐만 아니라 국가, 전북도, 관련 기관, 기업의 소통과 협업이 필요하며, 백구 특장차 클러스터의 성공적인 조성을 위해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나아가길 바란다"며 굳은 결의를 다졌다.

/김제=곽노태기자

지구상에서 가장 빨리 뜨거워지고 있는 곳 '북극'

우리집을 지켜주세요

전문가에 따르면 자동차와 공장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 증가로 인한 지구 온난화로 빙하들은 점점 녹고 있으며, 이는 지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해양 얼음의 손실은 지구가 태양 광선을 효율적으로 반사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결국 지구 온도의 상승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

전주매일 지구온난화 캠페인